



## 男 103만명 “그냥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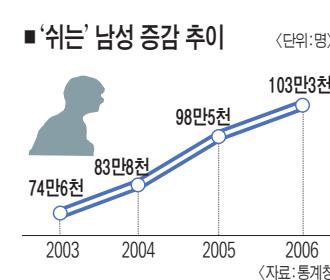
100만명 첫 돌파…비경제활동인구 1,478만명

지난해 국내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특별한 이유없이 집에서 ‘쉬는’ 남성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평균 1천478만4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보다 22만7천명(1.6%) 늘어난 것으로 일하지 않는 데도 실업자로도 잡히지 않는 인구가 최고 수준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광주지역의 지난해 4·4분기 현재 남성 실업자는 2만명. 이는 2005년 4·4분기 1만6천명보다 4천명(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해 4·4분기 여성 실업자는 6천명으로 1년새 4천명(40%) 감소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보면 ‘쉬었음’은 12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3.2%) 늘었



다. ‘쉬었음’은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2003년 90만7천명, 2004년 103만3천명, 2005년 123만8천명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쉬었음’ 인구중 남성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쉬는’ 남성은 103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8천명(4.8%) 늘어나 여성과 중·고령층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를 반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광주 투자 매력은 ‘양질의 노동력’

### 약점은 ‘수출지원 부족’

국내외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65개사)와 외국(11개사)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투자동기’를 조사한 결과, ‘양질의 노동력’을 꼽은 기업이 45.9%(3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센티브 등 투자지원정책’ 21.2%(18개), 사회기반시설 11.8%(10개), 노사관계 4.7%(4개) 등의 순이었다.

이는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 인력 채용이 수월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환경의 약점으로는 41.

7%가 ‘수출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금융서비스 제공 미흡’ 24.3%, ‘인센티브 지원 부족’이 12.6%로 뒤를 이었다.

생산일자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만점)에서는 현지 주민의 환대(3.7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종업원의 생산성(3.5점), 공장부지 및 임대 비용(3.4점), 노사관계(3.1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체 및 부품 확보는 2.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가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운데 자금지원(4.0점)과 세금감면(3.8점)의 만족도가 시설지원(3.3점)이나 원자재 수입지원(3.0점)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혁신도시 기본구상 ‘교육·의료’ 빠져

### 광주시·전남도 “이주 조건 1순위” 수차례 건의…건교부 묵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올 연말 나주에 착공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주기관 종사자들이 가족 동반 이주 조건 일순위로

꼽고 있는 교육·의료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해 혁신도시 기본구상과 혁신도시 면적(220만7천평)을 확정한 데 이어 올

초 기본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추진협의회 등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가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인 만큼 양질의

교육·의료시설 유치를 타 시설 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

하지만 건교부 등은 기본구상에 인구유발 도입시설로 ▲대형 상업시설

▲특수목적학교(영어마을, 특목고) ▲대형 오피스텔 등을 선정한 했을 뿐 교육·의료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부에 들어설 이전 기관(17개) 사옥이나 사원 주거지, 연구기관 등의 시설은 건립과 동시에 별다른 절차 없이 운용이 가능하지만, 교육·의료시설은 사전 수요 예측과 이용자 의견을 종합해 건립해야 되는 특수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수준의 교육·의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세우고 나중에 기관이 들어가는 상업시설 등의 유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학교 등의 특수목적학교나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교육부·전남교육청,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늦어도 기본계획 발주(1월초) 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전기관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삼성의료원 등과 같은 사립병원은 의료 수요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되며 사설상 유치가 어려운 만큼, 국립의료원이나 국립대 병원 형태로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와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해 대한지리학회가 이전 대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광주일보사가 광주시 조정으로 공동혁신도시를 찾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등 각종 조사 결과에서 이주 대상자들은 가족과의 이주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꼽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추워야 가라” 은반위 북적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계속된 14일 휴일을 맞아 1천여명의 시민과 어린이들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실내빙상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아침 광주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4.9도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왕복 4차선 ‘화순터널’ 새로 뚫는다

### 광주~화순 체증 해소…1,563억 들여 2010년 완공

간에 기존 너릿재터널과는 별도로 광주~화순간, 화순~광주간 각각 편도 2차선인 화순터널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터널의 길이는 화순에서 광주방향 810m, 광주에서 화순방향 790m로, 광주시 동구 대남동~화순군 화순읍 대리를 잇는 화순~광주간

길이 5.7km, 폭 20m의 국도 22호선 건설 구간에 포함된다.

신설 터널의 입구는 광주 쪽에서 보아 기존 터널로부터 왼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터널구간은 거의 직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높낮이 차이도 거의 없어, 매일같이 치러지는 출·퇴근 전쟁은 물론, 겨울마다 도로가 얼어 차량소통이 막혔던 고질병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착공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구간 건설에는 공사비 1천295억 원과 보상비 268억 원을 포함 1천5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완공은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 ■ 광주·화순 도로확장공사



한편 지난 해 대한지리학회가 이전 대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광주일보사가 광주시 조정으로 공동혁신도시를 찾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등 각종 조사 결과에서 이주 대상자들은 가족과의 이주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꼽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사랑으로」부영에 가득 담아 드립니다

2007년 1월 15일(월) 부영 15주년 기념행사

부영은 15년 동안 사랑으로 부영을 만들었습니다.

부영은 15년 동안 사랑으로 부영을 만들었습니다.